

禪茶一如의 즐거움
茶園 녹수청산
 주소: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6-3782

현대 불교

법공양판 (수덕사) 18~19면
 방송·연예 20면

천년 염화미소 청소년 꿈 키운다

미륵보살반가상 어떤 국보인가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과 함께 국내 최대(높이 93.5cm)의 금동 반가상(半跏像)이다. 제78호 반가상이 직선적이고 날카로우며 장식적이고 기교적이지만, 이작품은 풍요 원만한 지체(肢體)와 간소 명량한 표현양식이 오히려 감각적인 육체를 통해 생동하는 미를 볼 수 있다.

머리에는 조그맣고 둥근 삼산관(三山冠)을 쓰고 얼굴은 거의 원에 가까울 정도로 풍만한데, 눈은 가늘고 눈썹은 아름다운 호선(弧線)을 그리며 눈두덩과 입가에 미소를 풍기고 있다. 길게 늘어진 귀뿔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상반신은 전라(全裸)의 모습이며, 몸에는 목에 2줄로 표현된 목걸이가 걸려 있을 뿐 아무 장식이 없다. 원다리는 늘어뜨리고 그 위 무릎위에 오른발을 얹었으며 오른 무릎은 활짝 펴져 착실하고 사실적인 조형을 보여 주고 있다.

간결 섬세한 몸체 '생동미' 불상 예술의 세계적 걸작

원손으로는 오른발 발목을 잡았고 오른팔은 팔꿈치를 오른 무릎에 대고 검지와 장지를 벌여 대고 있는데 두 손 손가락의 표현이 매우 섬세하다. 아랫몸을 덮은 하상(下裳)은 매우 얇아서 자연스럽고 충실하게 아랫몸을 표현하고 있다. 머리 뒤에 붙어 있는 긴 꼭지는 광배를 붙였던 자리로 보인다. 몸에는 도금한 위에 칠금(漆金)을 윤렸던 듯 금빛이 은은하다.

일본 국보 1호라는 광릉사의 목조반가사유상이 이 불상과 동형의 불상인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불상 출토지에 대해서는 경주 오동(五陵) 또는 충청도 벽촌 등의 설이 구구했고, 소속 국가도 한때 백제로 되기도 했으나 신라의 제작설이라는 설이 점차 유력해지고 있다.

진흥섭 전 문화재위원장은 "전체의 균형이 아름답고 금색 또한 은은하여 한국 금동불상의 대표적 걸작이다"고 평가했다.

김재경 기자

현대불교신문 전국 중·고교에 대생용 미륵반가상 보급

법공양판 (수덕사) (연예·방송·기획)



◇보광스님



◇성운스님



◇지우스님



◇백운스님



◇리선행법사

◇은평구사업연합회(회장 성운): 은평구내 중·고교 전체(22교좌)
 ◇해인승가대학 동문회(회장 보광): 종립학교(10교좌)

◇지우스님(금강사 주지): 은석교(1교좌)
 ◇관백운스님(춘천 석왕사 주지): 춘천교(1교좌)
 ◇리선행법사(조계종 상임포교사): 원주여교(1교좌)

곡선·조형미 탁월... 미술실기에 적합

미술교육적 가치

그동안 서양식 일변도로 흘러온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은 아그리빠, 비너스, 율리앙 등의 석고모형을 대생의 기초소재로 이용해왔다. 우리 문화재의 하나인 금동미륵보살 반가상을 대생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국대 손연철교수(미술학과)는 "우리 것으로 청소년들을 교육한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미륵반가상 외에도 석굴암 본존불 등 더 많은 불교 미술품을 대생용으로 개발해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교수는 오래전 동국대 입시에서 금강역사투상 대생을 실시했지만 중도에 흐지부지돼 버린 적이 있다면서 미륵반



◇손연철교수



◇박찬갑씨

가상의 적극적인 보급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각가 박찬갑씨도 "자기발전의 시대에 미의 주체로서 자기를 찾는 일에 늦은 감이 있지만 미륵반가상의 대생훈련을 통해 우리의 조형미를 몸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미륵반가상

의 보급은 외국의 것을 받아들이기 앞서 우리것을 사랑하고 우리의 본질을 이해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구의 직선적인 미술기법과 비교해 모난 것을 지양하고 곡선적인 부드러운 추구를 해 온 동양의 기법을 익힐 수 있어, 기존의 교육방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불교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방문선씨(동국대 대학원)는 "불교미술을 전공하는 저도 아그리빠 대생으로 미술의 기초를 익혔다. 미륵반가상의 대생으로 불교미술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보다 불교적이고 동양적인 미술에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반기워 했다.

이은자 기자

'부드러움 추구' 동양 기법 익힐 기회

"우리의 것 이해" 주체성 확립에 기여



대생용 석고 모형 제작 기술지원 범종사 김철오 회장

"석굴암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재인 미륵반가상(국보 83호)을 일반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시험보는 대상으로서 늘 가까이서 대하게 될테니 기쁩니다" 미륵보살반가상 석고모형 보급에 있어 모형제작 기술을 지원하는 범종사 김철오 회장(53). 지난 78년 '한국미술 5천년전'이 일본과 미국에서 열렸을 때 한국문화재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문화재로서 미륵보살반가상이 선정돼, 외국에 기증하기 위해 모형을 만들었다. 경희대 이종각 교수가

조각을 맡았고 범종사가 그 비용을 냈다. 보급용 반가상은 학생들 대생용으로 적당하게 원형높이 93.5cm를 55cm로 축소해 석고와 같은 성질을 가지면서 더 가볍고 잘 파 손되지 않는 FRP로 만든다. 지난 71년 범종사를 설립한 김회장은 26년간 각 사찰 범종을 만들어 봉안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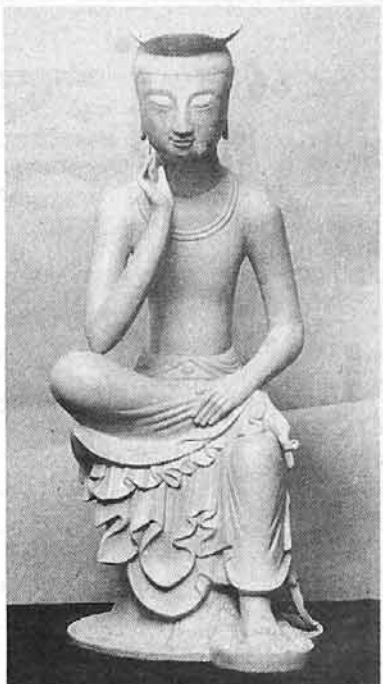
대표적인 작품이 불국사 통일대종, 화암사, 낙산사, 보문사 등의 종이며 76년 우리나라가 미국 독립 2백주년을 기념해 기증한 '우정의 종'도 만들었다. 범종제작에 아직까지도 구리와 주석의 청동을 사용하든 은은한 전통 종소리재현에 노력하고 있다는 김철오 회장은 "해방전후만 해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대부분이 불교종립학교였는데 이제는 타 종교에 비해 1백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하면서 "대생용 미륵반가상 보급이 불교계가 교육에 관심갖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경숙 기자

"민족얼 고치시키는 계기되길"

78년 '한국미술 5천년전' 원형 살려 이종각교수 조각

중·고교에 대생용 미륵반가상을 보급한다



◇원형을 60%로 축소해 대생용으로 조성한 석고 미륵반가상.

현대불교신문은 중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민족정신과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미술교육의 기초과정인 대생용 미륵반가상석고모형을 보급합니다.

왜 미륵반가상인가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은 국보 제83호(국립중앙박물관 소장·높이 93.5cm)로 그 조형미와 문화한 미소는 세계적으로 손꼽힌다. 따라서 조상한 얼이 담긴 미륵반가상을 우리의 중고생들이 대생함으로써 한국적 미의식을 새롭게 인식하고 사유의 폭을 넓히는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급 대상

전국 중·고등학교 각 1점씩 총 4,568점.
 ◇중 학교: 2,738개교
 ◇고등학교: 1,830개교

어떻게 추진되나

◇모형제작: 석고보다 견고한 FRP로 축소 제작(원형 높이 93.5cm를 높이 55cm 폭 35cm로)
 ◇기술지원: 범종사 (대표 김철오)
 ◇예산: 1점에 10만원씩
 ◇보급기간: 1996년 4월부터 12월31일까지
 ◇보급방법: 직접 방문 기증·화물수송·수령학교 직접 수령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누구나 가능
 ◇구좌단위로 참여한다.(1교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지역 학교·출신모교·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 온라인구좌는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현대프로덕션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벽히 갖추어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층 높여, 첨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사찰의 현황,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기 쉬운 견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앙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은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리콜) 02-305-9320
 팩스: 02-375-4143